

농어촌공사 김포지사, 우기·혹서기 사고 예방 만전

문찬식 기자 | 승인 2025.06.12 13:13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안전 보건협의체 회의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(김포=국제뉴스) 문찬식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(지사장 김태호)가 11일 우기 및 혹서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, 현안을 공유했다.

회의는 직원 및 건설 현장 현장대리인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 김포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매월 안전 보건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.

회의에서는 작업계획 내용 외에 우기 및 혹서기 대비 현장점검 요령과 온열 사고 대처,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구호 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.